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1244
----------	------

제안연월일: 2007. 2. 9.

제안자: 나승혁 의원 외6인

1. 주 문

600년 도읍지인 종로의 한복판에 소재한 경복궁의 정문을 이전하는 사항을 구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문화재청 및 서울시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건립될 광화문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조선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이자 종로구의 자랑인 광화문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경복궁 창건과 함께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고 1968년 현재의 위치에 옮겨지면서 원형이 훼손·변경되었음.

문화재청에서 경복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화문 복원은 일제가 경복궁과 어긋나게 한 광화문의 축을 고종 중건당시 기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교통체증 발생, 불안정한 지반에 건축됨으로 인한 광화문의 안전성 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종로 주민들은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600년 도읍지인 종로의 한복판에 소재한 경복궁의 정문을 이전하는 사항을 구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해야 함.

※ 참고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종로구에 소재하며 태조 4년인 1395년에 경복궁 창건과 함께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으며, 고종 2년에 중건된 후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신축되면서 해체되는 수난을 겪고, 1968년 현재의 위치에 옮겨지면서 원형이 훼손·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경복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화문 복원은 일제가 경복궁과 어긋나게 한 광화문의 축을 고종 중건당시 기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현재 위치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14.5m, 서쪽으로 10.9m 이동하고 방향도 경복궁 중심축에 맞춰 서쪽으로 5.6도 틀게 되며, 재질도 철근콘크리트에서 금강송 등 목재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광화문을 왜 복원해야 하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문화재청에서 광화문의 복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실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이나 주민 대표기관인 종로구 의회에조차도 의견을 물은바가 없으며 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문제입니다.

광화문 복원으로 도로가 남쪽으로 30m 밀려나면 을곡로와 사직로 중간을 막게 되는데 광화문앞 도로는 활처럼 휘고 차선 감소로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도 차량들의 방향별 신호대기 시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종로와 인근 교차로의 혼잡도 역시 55%~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불안정한 지반에 건축되는 광화문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광화문과 같이 종로구에 소재한 우리나라 보물 1호인 홍인지문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사라진 용성을 원래 모양으로 살리기 위하여 1999년에 복원하였으나, 면밀한 점검과 검사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결과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2000년에 다시 해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지지력이 떨어져 구조물이 불규칙하게 가라앉는 등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인지문 균열의 주요 원인은 건축물 밑을 통과하는 지하철과 바로 옆 차도의 진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광화문이 앞쪽으로 나와 복원될 경우 현재 광화문 앞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과 차량의 진동으로 결국 홍인지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화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이 차도쪽으로 나와서 건립되어서는 안 되고 현 위치에서 방향만 조정하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로 구민들은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600년 도읍지인 종로의 한복판에 소재한 경복궁의 정문을 이전하는 사항을 구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종로구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7만 종로구민은 이를 수긍할 수가 없으므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는 우선 역사와 문화 복원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건립될 광화문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7. 2.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